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포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사명자대회 새벽기도 · 매일 오후 전도로 뜨거운 열기

매일 새벽을 깨우는 기도와 오후의 교구별 전도의 열풍이 2001 사명자 대회 마지막 2주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새벽 미명에 본당을 울리는 우리의 기도소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고 이종윤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주기도문 강해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한다. 이번 주에는 사도신경 강해로 이어진다.

또한 오후에는 각 교구별로 교회와 이웃한 한티공원에서 교구 담당 교역자의 인

다음주 장로 임직식 · 추수감사 · 교회설립 10주년 감사 예배

교회 설립 10주년 기념주일이 1주 앞으로 다가왔다.

교회는 이 날을 기념하여 많은 행사를 갖게된다.

먼저 주일 낮 I,II,III부 예배 시에 추수감사절 예배와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성찬예식을 갖고 저녁찬양 예배 시에는 장로 임직식과 교회설립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찬양예배 시에는 지난 5월27일 공동의회시 투표를 통해 피택된 7대 장로후보

오늘은 태신자 초청주일

사명자 대회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I,II,III부 예배 시에 태신자를 초청하는 행사를 갖는다. 교회는 제출된 태신자를 초청하는 우편물을 이미 발송한 바 있다.

태신자 명단을 제출하신 성도는 기도한 후 태신자에게 한번 더 전화 또는 방문을 하여 예배에 참석 할 수 있도록 한다.

12월 8일(토) 23사단 세례식

오는 12월8일(토) 제23사단에서 비전2020 운동본부로 중심으로 진중세례식이 있을 예정이다. 비전2020 운동본부는 이날 준비하여 가져간 선물을 국군 장병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란다.

오늘 저녁예배 추수감사 찬양예배로 드린다

우리교회는 오늘 저녁 찬양예배를 추수할 많은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설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찬양예배로 드린다. 가브리엘 찬양대가 순서를 맡게 된다.

성경대학 수료식 갖는다

2001년도 2학기 성경대학 수료식을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 갖는다.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교사대학-

강신실 권지향 김혜경 박형수 양춘경 윤숙희 이경화 이경희 이인숙 최희정 박현영 정정숙 김은태 전하미 김복승 황의호 김태기 신용식 이영기 이영숙

-아모스반-

김복녀 김유경 김인순 김은정 김애경 박현영 박현주 배영애 서춘식 송두심 이경구 이민화 이화자 이혜정 한정원 전용순 허인숙 심재을 김중자

-전도학교-

박한옥 송경점 김영란 박상희 조정옥 이남복 김옥순 최희재 주화인

-음악교실-

유을상 박광식 이태인 유관모 박현주 이순희 김옥순 박춘자 이화자 김현숙 김복승 강신실 최용걸

-고린도후서반-

오승민 김규순 전하미 김은태 옥재만 왕원희 최규초 김정애 김옥순

-지도자반 (L.T.C.)-

최희재 김양숙 옥재만 정유선 이양구 노임숙

솔하에 자리를 마련하고 따뜻한 차와 음식을 준비하여 오가는 이들을 대접하며 전도에 힘을 써,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우리의 마음이 추운 겨울을 녹이며 얼어붙은 심령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다.

마지막 남은 1주간, 우리의 심령을 가다듬어 더욱 알차게 헌신하도록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자.

5명이 6개월간 연단의 과정을 거쳐 안수를 받고 임직을 하게 되는 장로 임직식이 있게 된다.

10년 전 눈물만 흘리던 우리에게 예배드릴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교회와 세계를 향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종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금주의 사명자대회 중 금요기도회 주관부서

월 일	교 구	전도회	교회학교	부서
11.23(금)	10.11.12	아브라함사라	중등부,고등부	스데반회

▶70인 전도대 주력 부서

월 일	교 구	남선교회/여전도회
11.24(토)	11.12교구	엘리아, 에스더

▶금주의 사명자대회 중 새벽기도회 주관부서

11.19(월)	11.20(화)	11.21(수)	11.22(목)	11.23(금)	11.24(토)
3.4교구 은빛 소망부 마리아 진행분과	5.6교구 임마누엘 새가족부 새가정부 엘리아 홍보분과	7.8교구 베들레헬 유년부 초등부 에스더 전도분과	9.10교구 호산나 중등부 모세 기도분과	11.12교구 시온 고등부 한나 아브라함 교육분과	전교인 총동원 연합찬양대 (가브리엘찬)



지난주 우리교회는

- ① 11월15일 4교구의 노방전도모습- 추운 날씨에 따뜻한 오뎅을 대접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 ② 20학기 목회자세미나를 마치며 - 10 Years Round Table Members들의 모습. 10년간 한결같은 침식을 감사드립니다.



20학기 목회자 세미나
“21세기 목회현장의 변화와 목회 신학”
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

이사야서 강해

고난의 종 메시아 (I)

(이사야 53장 1 - 6절)

예수님은 '여호와의 의로운 종'으로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그의 고난은 의로운 고난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신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중윤 목사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어떻게 느껴지는 것은 고통 자체 보다 그 같은 고통을 혼자만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면 고통의 무게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 세상 역사를 아무리 살펴봐도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 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일 뿐 아니라 천지만물의 주인으로 자기가 만든 세상에 오시었으나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와 멸시, 배신과 죽음까지 당해야 하는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사실 죄 많은 우리는 고통 당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어느 정도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호와의 의로운 종'으로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그의 고난은 의로운 고난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신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왜 고난을 받으셨나

산고를 통해 새 생명이 태어나고 죽음의 고통을 넘어 서면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주어지듯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고통은 곧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고 그 결과 하나님은 배신의 아픔을 경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통을 받으셨고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대속적 고통이라고 합니다.

(1) 메시아의 고난은 대리적 고난이다

야구선수가 부상을 당하거나 슬럼프에 빠지면 선수를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대체 세대'라는 말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탕은 사카린으로 대체하고 벽돌을 플라스틱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말은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저주받은 자들의 명단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해서 그 자리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영국 왕실에서는 왕자의 교육을 위해 왕자가 잘못하면 대신 매를 맞는 아이(wheeping boy)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로 영접하면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생명과 평화, 기쁨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고 했습니다. 아담 이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1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6절).

이 세상에는 손 없는 사람도 있고 발 없는 사람도 있고 감정이나 웃음이 없는 사람은 있지만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우리를 대신해 주실 분이 없다면 우리는 저주와 영원한 멸망의 구렁에서 헤어나갈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형장에 끌려가는 죄수의 행렬에 있는 한 사람, 몇 분 후에는 전기 의자에 앉아 집행관의 명령과 동시에 그 생명은 끝나고 맙니다. 만일 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누군가 그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땅위의 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놀라운 지혜는 '대리 죽음의 법'을 만드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확인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부터 짐승의 피를 흘려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자는 인간이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스스로 고통을 당하시면서 인간이 되어서 죄 없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 값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찢리시고 상처를 받으시며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4절).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징계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고난의 채찍을 받으셨습니다(5절). 그러므로 문둥병자 같은 우리 영혼은 소망 없는 상태에서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적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

게 된 것입니다.

(2) 메시아의 고난은 대속적 고난이다

이 세상에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가 많이 있지만 기독교만이 속죄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 사역을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 성취시키셨습니다.

①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므로 죄 용서함을 받으셨습니다(6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시 32:1).

그리스도 없이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고난받으신 종은 자신을 속건 제물로 바치셨습니다(7절).

털 깎는 자 앞에 서있는 양처럼 주님은 묵묵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③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성취되었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드리셨습니다.

④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아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넘어져도 주님은 넘어지지 않으시며 우리는 종종 낙심해도 주님은 항상 승리하십니다. 백혈병 환자나 피가 모자란 사람들에게 수혈을 하면 잠시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얼마가 지나면 다시 피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은 우리에게 항상 새 힘을 주시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⑤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매일 그와 교제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이 말씀은 리빙스턴 선교사의 잠언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밀림 속에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⑥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슬주정병이 복음 증거자가 되고 악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놀라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메시아의 고난은 대리적 고난이며 대속적 고난입니다. 메시아가 고난 당하시므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최양혜 권사(제2권사회 신임회장)

인생은 만남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

하지만 더 큰복은 하나님아버지를 만나고 주님을 구세...

20년 전 시어머님의 임종을 앞두고 교회에 발을 들여...

주님 저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나소연(청년부 신임 부회장)

저는 2002년 청년부 부회장으로 불러주시고 세워 주...

하지만 큐티를 통해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어진 모든 환...

김용호(대학부 신임회장)

아브라함의 삶을 기억하며 말씀에 따라 그의 본도 친척...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너...

저보다 앞서 행하시며 모든 시간 가운데서 저를 사랑하...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김명준 장로(가브리엘 찬양대 대장)

교회 설립 10주년과 주수감사절을 맞아 가브리엘 찬양...

목회자 신학세미나 10돌을 맞으며 손명철 목사

서울교회의 창립과 신학세미나가 시작된 것이 어제인...

주님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이성득 목사

주님이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땅! 이스라엘 이스라엘 성지에 첫발을 내딛었다. 첫날은 12시간을 비행기에서 다보내고 다음날부터 성지순례의 여정의 시작된다. 먼저 텔아비브와 붙어있는 읍바 향을 방문한다. 복음을 들고 1, 2, 3차 전도여행중 수 많은 위험을 무릅썼던 위대한 사도바울이 생각난다. 이바다를 무대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의 전령이 되었던 바울이 외치는 소리가 파도와 함께 귓전을 때리는 것 같다. 또 이곳 읍바향은 나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역하고 요나가 배를 탄 곳이기도하다.

버스는 가이사랴로 달려간다. 헤롯이 건설한 대수로와 바닷가에 건설된 야외극장은 4000명이 수용 되는데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미풍으로 마이크 없이도 목소리가 잘 전달되어 요즘도 한여름밤에 오페라나 음악회가 열린다.

이제 동북쪽으로 무크라카를 방문한다. 이곳은 갈멜산 정상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승리한 곳이다. 정상에서 동남쪽을 보니 다보산 모래언덕

길보아산이 보인다. 주여! 불을 내려주소서. 엘리야선지의 절규가 산꼭대기 바람소리와 함께 들리는 듯 하다. 뜨겁기도요새를 방문한다. 이곳은 다른말로하면 아마겟돈이다.

가버나움 회당을 찾아간다. 회당에 보니 앞에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상석이 있다. 예수님은 모세의 자리와 회당의 상석에 앉지말라고 하셨다. 늘 겸손해야겠다.

이제 헬몬산 기슭 북쪽지방으로 찾아갔다. 이스라엘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말하는데 단은 북쪽 끝을 말한다. 물이 귀한 팔레스틴에서 단에는 요단강의 근원이 있어 물이 풍부하다. 그러므로 자연히 신성시 되는 곳이다. 단에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를 알것만 같다.

조금더 가서 파니아스(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한다. 지금은 폐허화된 도시이다. 이곳에 목축의신 "판(Pan)"신의 신전이 있었다. 시리아와 접경인 골란고원을 돌아 본다. 폐허화된집들 총탄자국 부서진탱크 이스라엘 6일전쟁의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보인다.

오늘부터는 갈릴리 호수주변을 돌아본다. 베드로고기(Peter's Fish)가 나왔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가운데로 갔다. 함께 간 목사님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했다. 떡과잔을 받으며 주님을 생각한다.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해졌던 갈릴리 북쪽의 벳새다 들녘을 찾아간다. 5천

명 아니 5만명도 앉을수 있는 평평한 언덕이 펼쳐진다. 오병이어 기적 기념교회, 팔복산에 팔복교회를 방문한다.

호숫가로 내려오면 요한 21장에 나오는 배경장소라고 하는곳에 기념교회가 있고 그안에는 주님이 모닥불을 피워 떡과 고기를 구워 제자들과 함께 먹으신 것을 기념하는 베드로 수위권 교회가 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여리고 쪽에서 예루살렘은 올라가는곳이다. 함께 가진 분들과 노래를 부른다.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곳 아버지집 내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녁노을과 함께 저언덕위에서(해발1500m) 예루살렘성이 보인다.

감람산 언덕에서 예루살렘성을 바라보니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길,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갈보리 언덕 즉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가신 그길을 따라가 본다. 구속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북돋아 오른다. 이제 마지막으로 쿨란과 맛사다를 거쳐 여정이 마무리된다.헤브론, 사마리아, 베들레헴, 이란지역은 지금 긴장상태가 고조되어 가보지도 못했다. 이땅에 빨리 살림이 임하기를 기도한다. 성지를 밟고 주님의 흔적을 더듬어 찾아온 짧은 시간의 걸음이지만 감격이 넘친다.

기도해 주신 성도들과 성지순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는 이종운 목사님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서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사랑을 받았다고 믿는 분들은 주지하지 마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사랑부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역사하시고 계획하심을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풍성한 사랑을 만끽하고 나눌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사랑부로 오세요. 사랑부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을 버려주세요. 힘들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와 똑같습니다. 아니,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는 행복한 부서입니다. 영혼을 담은 그릇이 깨어진 우리 아이들의 귀와 입과 손발이 되어 헌신하실 분들은 꼭 꼭 오세요.

참! 주위에 장애인이 있으면 저희 사랑부에 알려주세요. 대한민국 끝이라도 달려갈 겁니다.10시 30분 1층 사랑부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등정

- 이종운 목사는 18일(주) 오후 초원교회 장로안수식 순서를 맡는다.
- 권도성 김화숙 성도(9교구) 득녀
- 권정아 성도(7교구)득남
- ☞ 금주의 식사제공: 최학인 장로 · 최소희 권사
부친 장례식은 은혜중에 마치고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HLKK 1188KHz) 생명을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사랑부로 오세요

조선영 (사랑부 교사)

지키시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시는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부를 섬기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게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 명의 아이중 한 아이의 기저귀를 1년 동안 갈면서 냄새에 대한 예민함을 없애 주셨습니다. 저의 영혼은 사랑부란 훈련소에서 더욱 다듬어져 갔고, 교육 프로그램 하나 하나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크고 영원하심과 정말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몇년전에 식당에서 사랑부 한 아이가 물을 달라고 해서 주다가 옷에다 물을 다 흘려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부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고 계시는 사랑부 선생님들을 바라보며 너무나 아름다웠고 사랑이 있어야 하지 은사가 있어야 하지 생각하며 5년을 그들과 지나쳐 갔는데 10년 전에 다른 곳에서 장애인들과 나누었던 시간들이 스쳐가며 저들을 나도 섬길 수 있었으면 생각했습니다.

사랑부에 가면 아이들에게 냄새도 나고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너무 힘들다던데... 하나님 저는 교만하고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람있게 보였다.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 층의 인사들의 교양강좌는 노인 학생들의 신심을 안정케 하였고 건강체조를 하며 모두가 보람을 느낀 듯 환호하는 모습도 엿보였다. 특히 컴퓨터반은 머리가 하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마우스를 움직이는 모습이 더욱 아름다웠다. 11월1일은 기독교 유적지 순례를 하며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자적 신앙을 배웠고 연암축산원에대학 견학을 통해 분재와 꽃 재배 등을 견학하며 원예시간에 배운 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10주간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학생들의 자질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함 것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살롬경로대학이 강의를 계속하며 발전하여 내년기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살롬경로대학을 마치고

김진호 집사(11교구)

노년의 지혜와 삶의 길을 높이고 평생교육이 요구되는 노인 층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설립된 살롬경로대학은 어느덧 제3기를 마치게 되었다.

2001년 9월6일에 개강하여 11월8일에 종강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서울교회의 적극적인 후원과 선생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3기 살롬경로대학의 강좌에는 처음으로 색다른 원예반이 신설되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좋았고 에어로빅반, 성경반, 컴퓨터반, 노래반 등 수준 높은 반으로 편성되어 각 학생의 취미와 소질에 따라 서로가 경쟁적으로 선택 과목에 열중하는 모습은 황혼의 시간이 더욱 활기차고 보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1 사명자 대회 7대기도제목을 위하여
2. 새로 임명될 2002년도 일꾼들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